

환경 복원 건설의 개가, 청계천



27개월의 기적... 열린 청계천에 새 물이 흐른다

- 서울의 생태·문화·역사적 자부심으로 거듭나, 세계적 환경 복원 사업으로 부상 -

2005년 10월 1일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5.8km의 청계천이 열렸다. 새 물이 흐른다. 지난 1958년 복개 공사로 청계천이 잿빛 아스팔트 밑으로 사라진 지 47년 만이다. 새로운 서울이 시작되었다.

복원된 청계천은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 청계 광장으로부터 성동구 고산자교까지 5.84km다. 모전교를 시작으로 광통교, 오간

수교, 비우당교, 고산자교까지 22개의 다리가 멋들어진 모습으로 청계천 위에 놓여졌으며 생태 하천으로 숲과 물과 물고기, 새, 그리고 사람이 어우러질 수 있는 생태 공원이 완성됐다. 청계천을 흐르는 물은 한강물과 지하수에서 인공적으로 끌어온 물로 2급수 수질이다. 아이들이 첨벙첨벙 물장구를 치기에는 충분하다. 하루 12만톤이 흐른다. 아

스팔트와 매연이, 악자한 소음이 가득했던 곳에 멋진 생태 공원이 생긴 것이다.

2년 3개월의 기적

청계천 복원은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비롯됐다. 이명박 현 서울시장의 공약이었다. 물론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을 살리자고 맨 처음 주장한 사람은 아니다. 이전에도

청계천을 살려야 한다는 사람은 있었지만 말뿐이었다. 청계천을 다시 살리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것이 현실이었다.

우선 청계고가도로가 매일 실어나르는 교통량, 공사 기간 동안 제대로 장사하기 힘든 6만여 개의 주변 점포와 20만 명의 상인 도박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다. 청계천 복원을 서울 시민들이 응원한 것이다. 이명박 시장은 당선되자마자 그해 7월 청계천 복원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3년 7월 도심을 가로질러 웅장하게 버티던 청계고가 상판이 뜯겨졌다. 역사적인 청계천 복원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당초 예상대로 어려움은 많았다. 첫번째 장애는 역시 정치적인 비협조.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이명박 시장에게 여당이 적극적으로 도울 리가 없었다. 그러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자자체가 하는 사업으로 좋은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 밀어주라”고 당부했다. 이후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제일 난관은 역시 주변 상인들을 설득하는 일이었다. 공사로 당장 생업이 막막해진 상인들의 반대는 극렬했다. 반대투쟁위원회가 결성됐고 삭발한 상인들에게 공사 관계자들이 떡살을 잡히기도 했다. 해법은 역시 대화였다. 무려 4,200번에 달하는 회의가 있었다. 복원 공사가 장사에 방해를 주는 것은 분명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사업 철회를 제외한 가능한 수단들이 모두 동원됐다. 계속 영업을 희망하는 업종에는 셔틀버스 운행, 인근 주차장 할인 등의 지원을 했고 향후 재개발을 통한 상가 리모델링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주를 희망하는 업종에는 향후 도심 재개발 희망 지역 이주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극렬했던 반대는 첫삼을 뜨고 고가가 철거되면서 잦아들었다.

청계고가, 청계천로를 이용하던 하루 16만대의 교통량도 문제였다. 도심 버스전용

차선 설치, 도심 통행 시스템 개편, 승용차 요일제 등 다양한 대책이 동원됐다. 절대적인 도로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버스 전용 차선, 버스 노선 개편 등은 시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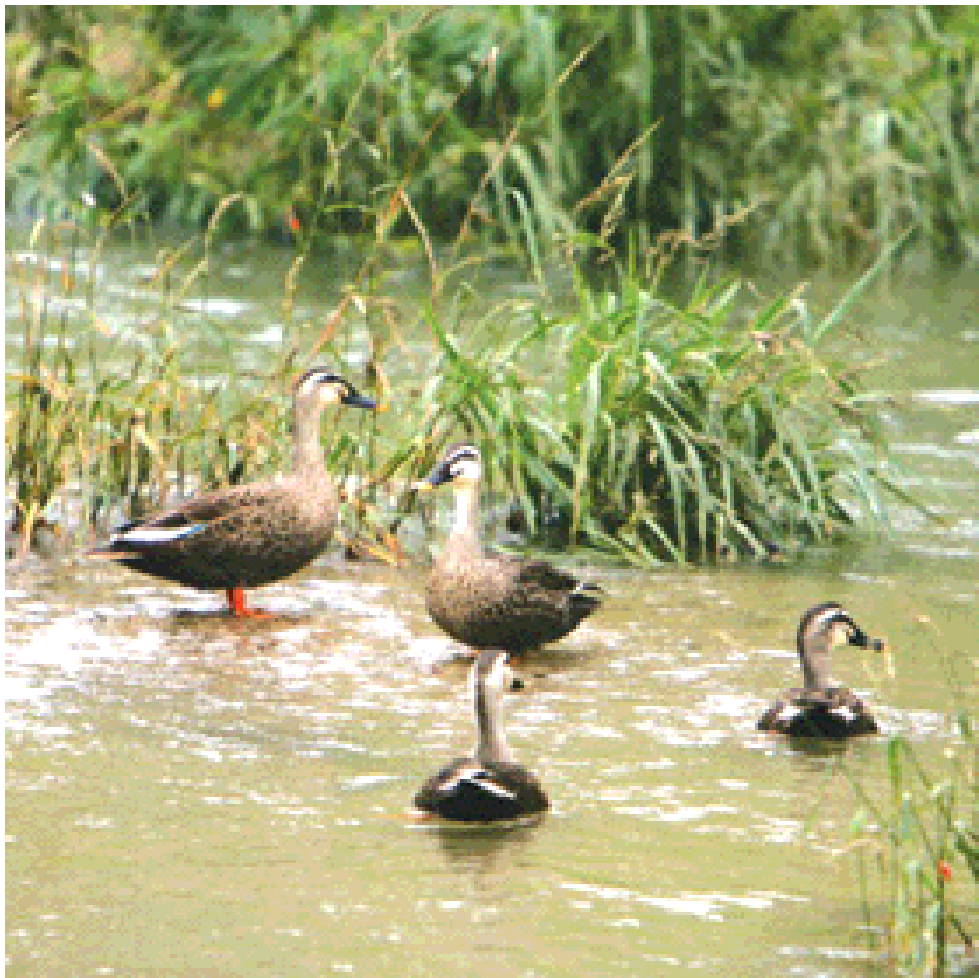
공기에 쫓기다보니 복원 공사 자체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첫 번째 난관은 청계고가 철거. 구간별로 나눠 안전 검사도 실시하고 하나씩 하나씩 뜯어내야 했지만 시간이 없었다. 결국 고가를 사각형으로 잘라 대형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 ‘신공법(?)’이 채택됐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우기를 대비한 차수벽 공사도 시간에 쫓겼다. 폭이 좁아 비만 오면 청계천에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비가 적은 겨울과 봄에 차수벽 공사를 끝내야 했다. 보통 1년이 걸리는 차수벽 공사가 넉달

만에 끝났다. 어떻게든 공기를 맞추겠다는 신념이 기적을 만들었다.

공사가 한창 진행되면서부터는 아스팔트 밑에서 잠자고 있던 문화재가 예상 밖의 복병이 됐다. 모전교와 수표교 근처에서 대규모 석축과 오간수문지 등 문화재가 잇따라 발굴됐다. 비가 오면 문화재가 쓸려 내려갈까 노심초사해야 했다. 또 청계천의 옛 다리인 광교와 수표교를 어떻게 복원해야 할지도 논란거리였다. 이명박 시장은 시민단체로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수많은 난관은 과거가 돼 경험에 쌓였으

픽 막혔던 도시의 회색 공간에 물길이 열렸다. 물길을 따라 비탈길이 또 열렸고 그래서 자연이 돌아왔다. 5.8km의 청계천. 그 곳에는 물고기가 숨을 쉬고 새가 난다. 그리고 꽃이 핀다.



환경 복원 건설의 개가, 청계천

며, 지난 10월 1일 청계천은 드디어 역사적인 새 물을 맞았다. 2년 3개월의 기적이다. 일본에서는 벌써 청계천 복원 사업을 벤치마킹해 도쿄의 한 고가 철거가 검토되고 있다. 청계천 복원 사업은 2004년 건축비엔날레에서 최우수 시행자상을 받는 등 세계에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울의 새 관광 명소로

청계천 복원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우선 도심 속의 녹지 공간을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딱 막힌 회색 공간의 숨통이 트였다. 게다가 그냥 녹지도 아니다. 꽃이 피고 새가 날고 물고기가 뛰노는 5.8km의 생태 공원이다. 도심 속 생태 공원은 근처 직장인, 상인, 관광객들에게 정말 유용한 휴식 공간이 됐다. 점심 시간이면 이미 청계천 주변을 걷는 직장인들이 눈에 많이 띈다.

서울의 대기 환경도 크게 개선됐다. 청계고가 가 없어지면서 차량 통행이 줄어 배기가스가 감소했고 도심 한가운데에 새로운 바람길도 열렸다. 벌써 청계천 일대의 열섬 현상이 사라지고 기온도 2~3도 줄었다고 한다. 미세먼지도 줄었다.

갓가지 볼거리로 가득찬 청계천 일대는 서울의 새 관광 명소로 부상할 전망이다. 186m 길이의 정조대왕능향변차도, 워터스 크린, 무학고 인근의 터널 분수와 282개에 달하는 야간 조명, 천변의 갈대와 억새 등 전통과 현대, 자연을 망라해 청계천에만도 볼거리가 즐비하다. 주변에 들를 데도 많다. 세계적인 쇼핑타운인 동대문 시장도 볼만하며 평화시장 부근의 한복방 거리도 코스에서 빼놓을 수 없다. 또 청계천을 무대로 이어질 다양한 문화 행사는 청계천을 참여하는 관광 공간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도심 경제 부활의 단초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하다. 벌써 인근 상가와 주택 등 땅값이 오르고 있다. 시원한 청



계천이 도심 경제 부활의 단초가 되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청계천 복원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청계천 복원 공사비 3,900억원을 포함해 주변 지역 개발까지 6조 4,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계천 복원과 주변지역 18만 3,000여 평을 재개발하면 23조 7,800억원의 생산,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나타난다. 전국에서 31만 명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새로운 서울의 시작

청계천 복원의 가장 큰 의의는 새로운 서울의 시작이라는 점이다. 개발 독재 시대 필요할 때마다 부수고 파헤치고 짓고 했던 곳이 지금의 서울이다. 삶은 없다. 여유를 찾기도 힘들다. 고도 성장을 위해서는 효율만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서울은 과거 6백년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삶의 터전으로의 본모습을 찾아야 한다. 역사와 문화가 현대와 살아 숨쉬는 모습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청계천 복원은 6백년 서울의 본모습을 찾아가 새로운 서울의 시작이다.

몇 가지 남은 문제

몇 가지 남은 문제가 있다. 먼저 청계천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좁은 폭과 높은 웅

청계천 복원 공사는 환경 복원 사업의 전형이다. 공사 과정은 순탄치 않았지만, 한국 건설산업 특유의 '독심'으로 비지움을 흘린 결과는 보람이다. '자연 파괴적 개발'이라는 건설업 이미지가 '환경 창조적 개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래 지향적 이미지로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이다.

벽은 홍수 때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게 되면 위험하다. 역시 청계천 주위의 인공 시설들도 마찬가지다. 홍수에 대한 확실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물 대책도 필요하다. 현재 인공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은 진정한 청계천의 복원이라 하기 어렵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봐야 한다.

청계천을 서울 도심의 문화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살아 있는 청계천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가 기획되어야 한다. 도심 경제의 부활을 위해서는 주변 지역 재개발도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끝으로 청계천은 새로운 서울의 시작이다. 청계천으로 생태 도시 서울에 한 발짝 다가선 것처럼 이제 서울을 하나씩하나씩 자랑할 만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공기에 쫓기며 사실 쉽지 않았던 청계천 복원 공사는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가는 데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박성태
한경와우TV 부동산부 기자